

‘읽기·토론·쓰기’ 통합 교육의 효율성 제고*

- 『명저읽기와 글쓰기』 강좌를 통해서 -

김원준**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교재 현황 및 수업 방향
- III. 읽기·토론·쓰기 통합 교육의 필요성
- IV. 통합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
- V. 읽기·토론·쓰기의 통합 교육 - 마무리를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읽기·토론·쓰기가 연계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통합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영남대학교에서 개설한 『명저읽기와 글쓰기』를 대상으로 하여 명저읽기와 토론의 연계성, 토론과 글쓰기의 연계성, 글쓰기와 읽기의 연계성을 통해 3자 통합 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읽기와 토론의 연계다. 읽기는 토론이 전제가 되는 관계로 능동성을 발휘하여 텍스트에 대해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하게 된다. 토론은 읽기를 통해 정리된 내용과 논의점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합리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시읽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시읽기를 통해 논점의 핵심에 대한 재인식을 제공하여 주장에 대한 재정립 및 새로운 가치 발견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읽기와 토론은 연계를 통한 상호교환에 의해 통합에 이른다.

토론과 글쓰기가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양자는 연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토론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민족어문학회 하계학술대회>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교양국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점이나 질의들은 훌륭한 글감이 될 수 있다. 좋은 글은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참신한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재를 갖추어 보기 좋은 살집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토론과 글쓰기의 연계는 각각의 기능을 상승하게 하며 이것이 통합이 될 때 시너지 효과는 한층 더 제고된다.

읽기와 글쓰기는 읽기와 토론의 연계와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 읽기가 글쓰기를 위한 사전 활동이라면 읽기와 토론의 연계에서 보여준 기능과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의 진행상 글쓰기가 최종 단계이므로 읽기에서 글쓰기로 바로 나가지 않고 읽기와 토론을 연계한 글쓰기로 나가고 있어 글쓰기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다.

주제어 : 읽기, 토론, 쓰기, 연계성, 효율성, 통합교육

I. 문제제기

대학 교양 교육에 있어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교양국어 글쓰기 체제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목표는 글쓰기 능력을 대학생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및 효율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교재를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술한 논의를 거쳐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 대학 글쓰기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성과와 결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글쓰기 교육은 쓰기의 기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므로써 대학 글쓰기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대학 글쓰기를 학술적 담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담론의 생산이라는 정의 하에서 본다면,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글쓰기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글쓰기의 의미를 인식해야 하는 특성이 중

요한 요소가 된다. 대학작문으로 진행되었던 글쓰기 교육은 대부분 이러한 텍스트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텍스트 지식 역시 글을 쓸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쓰기의 실천적 활동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¹⁾ 글쓰기 교재가 글의 구성이나 글의 유형에 중심을 두고 글쓰기의 실천적 활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글 그 자체에 치중하는 글쓰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정형화된 글쓰기를 지양하고 창조적 사고력과 표현력 그리고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글쓰기가 요구되면서 글쓰기는 말하기와 상호 연계하여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읽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읽기를 통해 쓰기를 통합하려는 방법론이 제시되었다.²⁾ 읽기는 단순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를 분석하고 적용하며 종합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사고력을 요한다. 글쓰기가 효율적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이라는 본래적 취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토론과 읽기가 연계된 통합 교육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읽기, 말하기, 쓰기가 연계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통합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남대학교에서 개설한 『명저읽기와 글쓰기』를 대상으로 하여 명저읽기와 토론의 연계성, 토론과 글쓰기의 연계성, 글쓰기와 읽기의 연계성을 통해 3자 통합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연계의

1) 이선옥, 「대학 글쓰기에서 자료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 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 149, 2008. 756~757면.

2) 이재승은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읽기와 쓰기의 특성에 비추어 자연스러우며,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는 학문적인 논리를 떠나서 하나의 시대적 추이가 아닌가 한다. 분리보다는 통합, 부분보다는 전체를 지향하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11호, 2004. 276면.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장 교육 적용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여 통합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II. 교재 현황 및 수업 방향

『명저읽기와 글쓰기』의 기본 텍스트는 계열별로 구성된 명저 6~7권이 다. 계열별로 선정된 명저는 영남대학교 명저 선정위원회에서 뽑은 100권 중의 일부로 계열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교재의 편찬 의도는 쓰기 위주 교육을 뛰어넘어 읽기, 쓰기, 토론하기 등의 과정을 복합·조화시켜 능동적·진취적·창조적인 인재 교육을 위한 것에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고전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여 추출하고 그것이 오늘과 내일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이 강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계열별 필독 도서 목록, 그리고 수업계획서를 통해 교재 현황과 수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계열별 도서목록>

표1. 인문계열 명저

선정도서		저자
필 수 도 서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사기(열전)	사마천
	간디 자서전	간디
	아라비안나이트(1)	
	광장	최인훈
	거대한 변환	칼폴라니

표2. 사회계열 명저

선정도서		저자
필수도서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그리스 비극]	소포클레스
	문화와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나의 생애와 사상	알베르트 슈바이처
	당신들의 천국	이칭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표3. 이공계열 명저

선정도서		저자
필수도서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광장	최인훈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나의 생애와 사상	알베르트 슈바이처

표4. 사범예체능계열 명저

선정도서		저자
필수도서	백석시	백석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구운몽	김만중
	베토벤의 생애	로맹 롤랑
	예술과 환영	에른스트 한스 고프리치

<수업계획서>

표5. 『이공계열 명저읽기와 글쓰기』

주차	학습목표와 목차	주교재 및 참고자료	퀴즈/과제/토론유무
1	■ 오리엔테이션	수업계획서	토론
	■ 글읽기와 글쓰기	조동일의 <글읽기와 글쓰기>	
2	■ 명저1 <이기적 유전자> 읽기	명저1: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토론
3	■ <이기적 유전자>를 통한 주제 및 제제의 이해와 실제	주제 설정과 제제 수집	가주제/진주제/주제문 작성
4	■ 명저2 <엔트로피> 읽기	명저2: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토론
5	■ <엔트로피>를 통한 구상과 개요의 이해와 실제	구상과 개요 작성	개요 작성
6	■ 명저3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읽기	명저3: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토론
7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를 통한 문단 전개의 이해와 실제	문단의 전개	단락 쓰기
8	■ 중간고사		
9	■ 명저4, 5 <광장>, <멋진 신세계> 읽기	명저4,5: 최인훈 <광장>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토론
10	■ <광장>, <멋진 신세계>를 통한 주제 및 제제의 이해와 실제	비평적 글쓰기/감상문과 논술문 쓰기	비판적 글쓰기
11	■ 명저6 <나의 생애와 사상> 읽기	명저6: 알베르트 슈바이처 <나의 생애와 사상>	토론
12	■ <나의 생애와 사상>을 통한 자서전에 대한 이해와 실제	성찰적 글쓰기	성찰적 글쓰기
13	■ 명저7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읽기	명저6: 빌 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역사>	토론

14	■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통한 과학 보고서 쓰기	과학적 신화적 글쓰기	과학 보고서 쓰기
15	■ 기말고사		

Ⅲ. 읽기·토론·쓰기 통합 교육의 필요성

대학 교양 교육에 있어 글쓰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다. 대학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글쓰기 관련 교과를 개설한 강좌의 강의 목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대개 3가지 차원의 범주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소통 차원, 둘째 사고의 차원, 셋째 지적 차원을 들어 설정하였다.

의사소통 차원에서의 글쓰기는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다. 즉 글쓰기를 통해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사고의 차원을 들고 있는데, 사고는 글쓰기의 바탕이 된다. 어떤 사고 능력을 지녔느냐에 따라 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학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글쓰기는 논리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고의 차원도 이와 연계되어 분석적·합리적·창조적·비판적·종합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 차원을 들 수 있다. 이는 만큼 보이고 이는 만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대학의 글쓰기는 지식을 배양하여 지적 수월성을 갖춘 글쓰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뚜렷한 목표 하에 대학 글쓰기는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대학 글쓰기 교재의 편제나 강의시간을 고려할 때 상기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존 글쓰기 교재의 편제를 보면 글쓰기와 관련된 이론을 전면에 배치하고 글의 구조별·유형별 글쓰기로 이

루어졌다. 이는 쓰기의 기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글쓰기라 볼 수 있다.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에서라도 글쓰기의 기초 능력을 확립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대학의 교재 내용은 글쓰기의 원리와 실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³⁾

논자가 강의했던 영남대학교의 교재인 『직업세계와 맞춤형 글쓰기』는 더 분화된 실용적 글쓰기로 볼 수 있다. 교재 머리말에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책과 교수법으로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의 전공 영역에 따라 따로 만들어진 교재로 특화된 ‘맞춤형’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학 교양 교육의 새로운 시도로서, 전문적 직업 세계에서 전문가가 되는 데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하여 직업세계와 연관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취업이라는 당면한 문제와 맞물려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교재이다. 수강학생의 학문분야와 미래의 직업과 연관한 실제적 글쓰기라는 점에서 일반적 글쓰기 강의와는 달리 상당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 교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양이라는 본질적 물음이나 글쓰기 본래의 취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맞춤형 글쓰기인 것이다.

3) 이선옥, 「대학 글쓰기에서 자료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 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 149호, 2008. 758~759면. 몇 개 대학을 보면, 고려대의 경우, 과목명은 『글쓰기의 기초』이며 교재 구성은 글쓰기의 이론, 실제, 텍스트 이해와 글쓰기 유형으로 이루어졌고, 성균관대학은 『창조적 사고, 개성적 글쓰기』이며 이론과 글쓰기의 실제로 구성되었다. 카이스트의 경우 『글쓰기 여행, 토막글에서 통글까지』인데 내용 구성은 주로 글쓰기 이론에 치중되었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비판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론 중심의 글쓰기는 탈피되어야 한다. 다원화, 다각화, 다변화된 현시점에서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술적 글쓰기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글쓰기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이 토론과 읽기의 끌어안기이다.

읽기에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모든 수준과 활동이 종합적·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읽기가 단순한 글의 이해 차원을 넘어 분석, 비판, 종합의 과정을 거쳐 지식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읽기를 통한 다양한 사고와 인식 그리고 시각의 확대는 토론과 글쓰기에 깊이와 다양성을 제공해준다. 토론은 다양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다양한 관점이 나온다. 읽기와 연계될 경우 토론 준비를 위해 텍스트의 내용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분석 능력이 생기며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실천의지로 나갈 수 있게 한다. 토론이 글쓰기와 연계될 경우 토론의 논의점들이 글쓰기의 글감이 될 수 있으며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시각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논리적 전개를 유도할 수 있다.

읽기, 토론, 글쓰기는 연계지도와 통합지도가 가능하다.⁴⁾ 읽기, 토론, 글쓰기를 개별적 주체로 두고 읽기와 토론, 토론과 글쓰기, 읽기와 글쓰기, 읽기와 토론과 글쓰기로 이어질 경우 이들 사이에는 연계지도와 통합지도가 가능하다. 각 개별 주체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난 것으로 두 대상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연결지으려 했다면 연계지도에 해당한다. 반면 둘을 각각 독립된 실체로 보기는 하나 전체로 보는 시각,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시

4) 통합지도와 관련하여 이재승,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11호, 2004. 참조.

각으로 설정했다면 통합지도에 해당한다.

『명저읽기와 글쓰기』는 읽기와 토론, 그리고 글쓰기가 연계된 강의이다. 수업 진행상 읽기, 토론, 글쓰기로 이어지며, 토론이나 글쓰기를 위해서는 읽기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통합지도의 과정상 읽기는 토론이나 글쓰기에 통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이고 독립된 실체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 강좌의 목적은 명저의 핵심 가치를 우리 시대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데 있다. 핵심적 가치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셋은 하나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통합지도로 갈 수밖에 없다. 연계성을 강조한 통합은 읽기, 토론, 글쓰기의 개별적 능력을 기르는 데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양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IV. 통합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

논자는 통합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남대학교에서 개설한 『명저읽기와 글쓰기』강좌의 강의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시각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강좌의 강의는 읽기, 토론, 글쓰기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강의 진행은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연계된 통합 지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강의의 목표인 ‘명저의 핵심가치 찾기를 통한 현대적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읽기, 토론, 글쓰기는 강의의 목적에 따른 통합 지도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1. 읽기와 토론의 연계

명저 읽기가 토론을 위한 사전 활동이라면 읽기 전략은 토론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읽기를 독립된 실체로 둘 경우 독자는 텍스트에 나타

난 세계나 가치관을 개인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 편협되고 고정화된 시각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읽은 내용의 이해에 머무를 경우 수렴적 사고에 그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토론을 염두에 둔 읽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동적 자세의 읽기에서 능동적 자세의 읽기로 나갈 길을 훨씬 많이 열어두게 되는 것이다.

능동적 글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능동적으로 읽느냐이다. 능동적 글읽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우리 시각에서 재구하여 현재적 가치를 찾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일 뿐 더 이상의 능동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이해조차도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전일 때는 텍스트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길라잡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해제가 주어졌다고는 하나 그 자체가 더 큰 의문을 남기게 하는 수도 있다. 아래의 글은 강의 중 길라잡이 역할을 위해 작성한 ppt 양식이다.

표1) PPT자료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 ■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내용 •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는 데 있다. • 그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의 원칙에 의해서 존재를 영위한다. • 자기 보존은 자기복제를 의미하고 자기 복제는 유전자의 기능에 의존한다고 기술. ■ 생명체의 기본 단위 - 유전자(遺傳子) ■ 세포 - 유전자의 화학공장, 신체 - 유전자의 몸체 ■ 유전자 - 자기의 생존 기제인 우리의 행동을 제어 ■ 도킨스는 유전자 수준에 있어 “이타주의는 찰리고 기주의 뿐이다”라 주장	<왜 유전자가 이기적인가?> • 유전자의 성질 - 끊임없이 복제자를 퍼뜨리고자 함 • 복제자를 퍼뜨리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 •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변모 <이기성의 예> • 어머니 자식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다른 수컷을 찾아 도망갈 경우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식으로 보복. • 새로운 배우자를 취한 경우, 의붓자식일 때는 모두 죽임. • 쥐 - 수컷의 분비 물질로 태아를 유산. • 사자 - 무리에 새로이 끼면 거기에 있는 새끼를 죽임. • 사마귀 - 교미하는 수컷을 잡아 먹음.
--	--

<밈(meme)>

- 문화적 진화의 단위
-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두뇌에서 다른 사람의 두뇌로 복제
- 밈은 기능적으로 사람들의 두뇌를 감염시키고 그들의 태도를(정보 구조를 복제) 바꿈으로써 자신을 복제하는 정보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밈은 유전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문화의 요소

<밈과 유전자의 차이>

- 유전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수직적 매개)이기 때문에 유전에 시간이 걸리며, 유전자를 전해 받는 개체수도 제한된다.
- 밈의 복제는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수평적 매개) 복제의 정확성은 떨어지나 빠른 시간 안에 무제한으로 다른 개체에 전파, 확산될 수 있다.

<도킨스의 이타주의>

- 개체 수준에서는 이타적으로 보이나 자기의 손자를 최대한 증식시키기 위한 계산된 이기주의의 산물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수고는 필연 이타주의의 특수한 예일 뿐이다
- 가미, 갈벌 - 이타적 표본이나 이기적 유전자의 대표적 예
- 일벌레는 번식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육

<상선설과의 관계>

- "어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위할 줄 알고 형제를 공격할 줄 안다"라고 밈자의 말에 대한 도킨스의 입장
- "나"라는 존재에서 부모가 가깝고, 형제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나 > 부모 > 형제 > 이웃의 순
- 자들의 이유 : 유전자의 자기 본위적인 이기적 성향은 곧 바로 인간의 성향이 기 때문에 즉 자기위주의 사고와 행동.

<이기적 유전자> 논의점

- 논점1 :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인간은 유전적으로 이보다 환경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시각에서 보면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잠재적 위험성은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시오.
- 논점2 :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 '인간과 유전자와 상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의해 보시오.
- 논점3 :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근친상간'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과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어 토론해 보시오.
- 논점4 : 이기적 유전자에서 적자생존이 아닌 이타주의를 읽을 수 있다. 어떤 점들이 그러한지 토의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 논점5 : 도킨스에 의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과 '문화적인 학습과 전통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이 두 조각을 붙여, 그 논점을 극복시켰다. 여러문으로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논증하시오.

ppt자료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논의점을 제시한 것이다. 강의에 앞서 강의지원에 자료를 먼저 올려 놓음으로써 읽기 과정에서 도킨슨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만든다. 또한 논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도출하게 만들어 읽는 과정 속에서 분석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부여하게 한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고전읽기와 토론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에게 텍스트 정리를 통해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텍스트를 통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학생들이 토론에 앞서 강의지원에 올려놓은 자료다.

표2〉 학생 자료 예시

제 목	1.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작성자	20710XXX 남OO
내용정리			
진화는 누구에 의해 설명되어졌는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한 이는 다윈이다. 하지만 이 진화론에서는 개체의 이익이 아닌 종의 이익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위의 잘못된 가정과는 달리 모든 생물체는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사실이다. 유전자의 성질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정한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 비정한 이기주의 성질을 지닌 유전자로 우리가 진화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정의는 주관이 아닌 행동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이기주의의 예를 들면, 검은 머리 갈매기는 서로의 동족을 죽이며, 암사마귀는 교미 후 수사마귀를 먹이로 먹어버린다. 또한, 황제펭귄은 자신 스스로가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 무리 중 하나를 바다로 떠밀어 버린다. 그에 반해, 이타주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벌은 스스로 자살을 함으로써 집단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 저장고를 지켜내며 작은 새는 경계음을 통해 무리에게 위험을 알린다. 어미새는 ‘혼란 과시’라 부르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적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한다. 집단 선택설이란, 자기 희생을 치르는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희생을 치르는 개체, 즉 이타주의자들을 이용하려는 이기주의자가 있다. 그 이기주의자들은 이타주의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자손도 더 많이 낳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 글의 논점인 진화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의 기본단위, 즉 이기성의 기본 단위가 종도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라는 것이다.			
논의점			
1.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들으며 웃어른을 공경하라,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해라 등 여러 가지 예절과 도덕을 배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인가 아니면 학습의 영향인가?			
2. 황제펭귄은 바다에 바다표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리들 중 하나를 바다로 빠뜨린다.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 하는데 하나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희생을 피한다면 이타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3. 최근 인공 차별주의에 반대하여 동지 의식의 대상을 인류에서 종전체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소들도 자기 자신의 감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해 인간이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소를 죽인다는 것은 종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토의나 토론을 통해 능동적 글읽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텍스트 읽기가 토의나 토론을 염두에 둘 경우 단순히 이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의 근거를 위해 분석적이고 비판적 시각에서 텍스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논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텍스트

를 읽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읽기의 접근 태도가 달라진다.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읽기 과정에서 모호했던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게 된다. 내용의 선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자신의 관점에서 논의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분석력이 길러진다.

토의나 토론을 위한 사전 활동에서 읽기가 필요했다면 반대로 토의나 토론 과정에서 다시읽기가 요구될 수 있다. 토론자나 질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읽고 정리한 범주에서 자신의 논지를 펼치게 된다. 이 경우 어떻게 문제에 접근했느냐에 따라 서로의 주장은 나눌 수 있게 된다. 이해의 범주가 다르고 그 이해에 따른 논의가 타당하다면 양자는 다시읽기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읽기를 통해 논점의 핵심을 다시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시읽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논지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개별 가치를 찾아낸 셈이 된다. 이처럼 읽기와 토론이 연계될 경우 양자 모두는 개별적 능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2. 토론과 글쓰기의 연계

읽기를 통한 사전 활동이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이 진행되고 난 후 토론에서 쟁점화되었던 논의점이나 텍스트 내용의 핵심 쟁점을 논제로 제시하여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토론을 통한 글쓰기의 연계로 나가는 것이다. 토론이 글쓰기와 연계될 때 토론은 글쓰기의 사전 활동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토론과정은 글쓰기를 염두에 두게 되므로 토론 과정시 논의된 쟁점이나 논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글쓰기를 위한 다양한 제재거리들이 마련된다. 또한 토론 과정 중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서로 간의 논리적 반박은 참신한 주제를 찾아낼 수 있게 하고 논리적 글의 전개

를 가능케 한다. 발표자의 토론 수업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글쓰기와
의 연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명저읽기와 글쓰기』에서 토론 수업의 진행은 준비과정·진행과정·정리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발표조는 조원들 모두가
연대하여 서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과정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토
론 대상 텍스트의 정리와 논의점 추출이다. 조별로 자신이 맡은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 주제까지 제시한 후 조별정리물을 수합하여 강의지
원에 올린다. 그런 후 조별 정리물을 가지고 발표조는 조원들이 의견을 수
렴하여 발표자와 발표 논의점을 정한다. 토론 진행과정에서 발표조의 발표
자는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논의점을 제시하고 논의점과 관련하여 정리
된 자료를 간단히 설명한 후 논의점에 대한 조원의 의견을 제시한다. 발표
는 발표자가 중심이 되고 발표해당 조원 전부가 나와 조별 논의점을 바탕
으로 나머지 조원과 토론에 부친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 나머지 조원들은
조별평가표에 따라 질의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정리과정은 담당교수
의 몫으로 논의점과 질의 토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쟁점화된 논의에
대해서는 부가적 설명을 덧붙인다. 각 과정들을 실제 수업 사례를 예로 들
어 정리해 보겠다.

〈준비과정〉

토론에 앞서 각조원들에게 대상 텍스트의 내용정리와 논의점 찾기를 요구
한다. 교재에 발제문과 논의점이 제시되어 있지만 가급적 학생들에게 직접
논의점을 찾게 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론에 부친다. 교재의 발제문과 논의점에
따라 토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는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를
제한하는 셈이 된다. 처음부터 문제의 접근을 열어두고 논자마다 자신의 생각
을 펼치게 함으로써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텍스트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토론 논제로 삼는 ‘발
제 능력’은 능동적 읽기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다.

이러한 방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발제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평소 책읽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핵심 내용과 상관없는 자기식대로의 정리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제를 제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논점이 이탈한다든지 단답형의 논제를 제시하여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가치있는 문제제기나 논의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충실한 읽기와 조원들간의 상호공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온전한 수업진행 방식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담당교수는 텍스트에 따라 텍스트의 핵심가치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논의점을 미리 제시해줌으로써 방향설정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진행과정〉

독서토론은 텍스트를 정해놓고 하는 토론이므로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논자는 두 가지 토론 방식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첫째는 조별대향토론이다. 조별대향토론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논의점 가운데 찬반이 명확하게 나뉘지는 논제를 찾아 토론에 부친다. 토론을 위해 각조의 대표 2~3명을 원탁에 배치하고 찬반으로 나눈다. 조별로 찬반이 나뉘지면 찬반대향토론에 부치고, 나머지 학생들은 따로 질의 시간을 주어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 이 때 사회는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자율적 토론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토론은 찬반이 확연히 나뉘지는 논제로 진행된다는 점과 대표성을 띠고 토론한다는 점으로 인해 상당히 열띤 토론으로 나갈 수 있다. 반면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참여자를 어떻게 끌어안고 원활하게 진행하느냐가 문제이다. 대안으로 토론자를 상시 교체할 수 있게 하고, 토론을 장외를 끌고나가 비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

둘째는 조별발표토론이다. 발표조는 전원이 앞에 나와 조에서 선택한 논점을 중심으로 다른 조원들과 토론을 하는 형식이다. 조원 중 발표자는 논점과 관련하여 교재의 내용을 정리 발표하고 논점에 대한 조원들의 입장을 제시한

다. 그런 후 다른 조원들의 질의에 응하는 식으로 토론을 이끌어간다. 이 토론 방식은 지정토론조가 토론 과정 전체를 주도하므로 토론 능력이 향상되고, 다른 토론자들도 공적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므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쌓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말하기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질의나 논의점이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하나의 논점에서 보편적 가치와 개별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점도 없지 않다. 대개 6개조로 이루어져 토론이 붙는데 비슷한 논의점이 나왔을 경우 토론이 산만해질 수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 참여도를 지적할 수 있다. 토론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학생이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강제적으로 토론을 부쳐보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토론 참여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지만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않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교수자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⁵⁾

〈정리과정〉

토론을 마친 후 담당교수는 토론 중에 오갔던 질의와 답변을 간단히 정리하고 토론 과정 중에 놓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해준다. 이때 현실의 문제와 연관하여 논의를 정리하는데 이는 고전의 가치를 현대적 가치로 재생산하려는 의도에서이다. 토론의 정리는 이후의 조별 논의점 선택 뿐만 아니라 질의에 있어서도 질적 향상을 보일 수 있다. 단선적 논의가 복합적·입체적 논의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텍스트 내용의 이해 차원에서 비판적, 분석적 읽기가 가능해지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논의점을 통해 텍스트의 문제의식이 현재 자신에게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5) 전은주, 『토론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조건변인 분석』, “‘준비-수행-판정’의 토론 단계별 필요 기능을 훈련시키고 그 각각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척도들을 개발해야 한다.” 449면

그런 점에서 담당교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의 제기와 그에 대한 분석과 비판, 종합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확장 논의된 내용을 자기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토론이 글쓰기로 넘어갈 경우, 학생의 토론과 글쓰기는 항상 정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있다. 학생에 따라 토론에 적극성을 띠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지만 글은 그에 비해 논리성이 떨어지고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고, 반면 토론에 있어서는 자신의 논지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글은 논점에 따라 논리적으로 잘 전개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토론과 글쓰기가 이원화 되어 개별적으로 놓고 있는 꼴이 된다.

토론에 충실히 임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반은 조성한 셈이 된다. 잘 된 토론은 텍스트의 핵심 쟁점을 찾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있다. 토론의 진행 과정에서 논의점과 그에 따른 질의·토론을 글로 치환하면 주제나 제재, 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논의와 심도있는 질의 토론은 바로 글쓰기의 좋은 재료감이 되는 것이다. 토론은 잘 하는데 글이 안 된다는 것은 토론과정에 대한 정리 부족일 수 있다. 주어진 재료들에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면 충분히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을 통한 글쓰기의 연계는 효율적 통합교육이 되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토론을 위한 사전 작업인 텍스트의 정리와 논의점, 진행과정상의 질의·토론, 사후 작업인 평가표 작성은 좋은 글감이자 재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표3) 조별 평가표 : 『엔트로피』⁶⁾의 한 예

1조 : 최00, 강00, 박00, 권00, 금00, 김00, 권00						
	평가기준	상	상-	중	중-	하
1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했는가?	00	0			0
2	주장이 논리정연 하고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는가?	0	00		0	
3	발표 요지의 구성과 내용은 잘 정리되어 이해를 도왔는가?	0	0	00		
4	질의에 대한 대답은 적절한가?	0	0	00		
<질의·토론 내용 평가>						
■ 논의점에 대한 내용이 명확치 않다. 무엇을 논의하는가? - 발표자의 생각에 대해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 발표자의 생각이 너무 주관적이다. ■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						
■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이한 논의점을 제시한 것도 좋았고 거기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도 분명했다.						
■ 기존의 발표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발표해 토론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다.						
■ 책의 주제에서는 살짝 비껴간 논의점 같지만 참신한 논의점 같다는 생각이 든다.						
■ 발표시 주장과 뒷받침하는 논거는 잘 제시되었지만 질문자들과의 질의에서 다소 철학적인 내용이 오가며 발표자의 주장과 논거가 모호해진 듯하다.						
■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조리있게 잘 설명함.						

3조 : 이00, 천00, 박00, 박00, 민00, 문00, 김00						
	평가기준	상	상-	중	중-	하
1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했는가?		00	00		
2	주장이 논리정연 하고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는가?		00	00		
3	발표 요지의 구성과 내용은 잘 정리되어 이해를 도왔는가?		0	000		
4	질의에 대한 대답은 적절한가?		00	00		
<질의·토론 내용 평가>						
■ 논의점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기준이 부정확했다.						
■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발표를 진행했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흡했다.						
■ 질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제시되었지만 발표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						
■ 내용이 잘 정리되지 못한 것 같다.						
■ 설명이 너무 길고 지루한 감이 있음.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 논리적으로 설명함.						
■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함.						

6) 질의·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적 평가를 통해 제시했다면 글쓰기에 있어 독창적 시각이나 논리적 전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읽기와 글쓰기의 연계

읽기가 하나의 독립 기능으로 끝날 경우 소극적이고 수렴적 읽기로 나갈 확률이 높다. 특히 고전을 읽을 경우, 이해 차원에서 머물러 수렴적 사고에 그칠 뿐 발산적 사고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論語』〈爲政〉편에 “學而不思則罔”이라는 말이 나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책을 읽었으되 책 속에 담긴 본질이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독서는 무용하다는 의미로 능동적 글읽기를 통해 가치 본질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朱子讀書法』에 “讀書之道, 用力愈多, 收功愈遠, 先難而後獲, 先事而後得”⁷⁾이라는 말이 있다. 독서의 길은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성과도 더욱 커지고, 처음은 어렵고 수고롭지만 나중에는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熟讀精思의 고전적 독서 방법이 진부한 듯이 비쳐지지만 고전의 가치를 현재적 가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읽기가 글쓰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기준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보편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시대에 따라 가치기준이 달라지므로 시대적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 읽기를 통한 가치 찾기라면 시대를 관류하는 보편적 진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가치 왜곡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글쓰기는 읽기를 통한 고전의 핵심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재해석하여 우리시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된다.

글쓰기는 읽기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그것을 자신의 삶이나 사회현실과 연관지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논증적 글쓰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강의 진행 순서가 읽기·토론·글쓰기인 관계로 명저를 읽은 후

7) 송주복, 『朱子書堂은 어떻게 글을 배웠나』, 청계출판사, 1999. 93면

토론 과정을 거쳐 글쓰기에 이른다. 글쓰기는 읽기와 토론의 연계에서 적출된 보편적 진실이나 시대적 가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적용할 수도 있다. 『광장』에서 이명준이 찾아나선 광장을 통해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할 광장에 대한 모색이나, 『멋진 신세계』의 존이 추구했던 진정한 삶을 행복의 관점으로 끌어들이어 산업화된 우리시대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논제로 삼아 한 편(1500자 이상)의 완성된 글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글쓰기는 읽기와 토론을 연계한 통합적 글쓰기가 되는 것이다.

V. 읽기·토론·글쓰기의 통합 교육 - 마무리를 대신하여

읽기·토론·글쓰기는 개별적 영역을 확보하며 각자의 기능을 발휘한다.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서로 연계될 경우 연계지도가 가능해지며, 무게 중심이 한 쪽으로 치우칠 경우 양자의 연계는 통합으로 발전하여 통합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명저읽기와 글쓰기>는 읽기·토론·글쓰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과정이 완결된다. 그런 점에서 삼자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유기적 관계 설정은 각자의 기능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체로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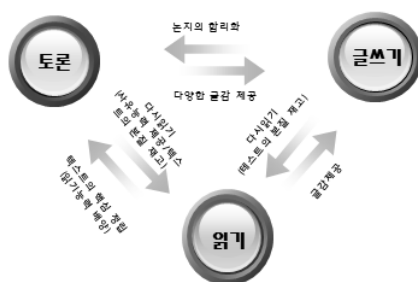
읽기와 토론은 기능에 있어 개별영역을 확보하고 있지만 양자의 연계는 항상 열려있는 상황이다. 토론을 전제로 한 읽기는 능동성을 발휘하여 텍스트에 대해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핵심 내용이 정리되고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토론을 위한 사전 활동으로서의 읽기가 이루어졌다면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 토론은 읽기를 통해 정리된 내용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한 논의점을 통해 서

로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이다. 토론 과정 중 쟁점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양자는 다시읽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읽기를 통해 논점의 핵심에 대한 재인식의 여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재정립 및 새로운 가치 발견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읽기와 토론은 연계하지만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으로 나가게 된다.

토론과 글쓰기도 마찬가지이다. 토론이 사전 활동인 읽기를 통해 완결되었다면 글쓰기는 필요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토론이 글쓰기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면 연계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토론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나 토론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논의점이나 질의들은 훌륭한 글감이 될 수 있다. 좋은 글은 참신한 주제를 찾아 다양한 제재를 갖추고 보기 좋은 살집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토론은 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토론의 적극적 개입과 잘 갈무리된 논의 정리만 있다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 된다. 내용적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형식적 요건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글쓰기의 기본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기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의 유형을 중심으로 공개첨삭을 한 후 다음에 쓴 글을 대상으로 개별첨삭을 하면 내용과 형식을 고루 갖춘 글로 변모를 하게 된다. 토론과 글쓰기가 연계될 경우 각각의 기능은 개별 상승효과를 지니게 되며 통합에 의해 시너지 효과는 제고된다.

읽기와 글쓰기의 연계가 남아 있지만 읽기와 토론의 연계와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 읽기가 글쓰기를 위한 사전 활동이라면 읽기와 토론의 연계에서 보여준 기능과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의 진행상 글쓰기가 최종 단계이므로 읽기에서 글쓰기로 바로 나가지 않고 읽기와 토론을 연계한 글쓰기로 나가고 있어 글쓰기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다. 읽기·토론·글쓰기의 통합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읽기, 토론, 글쓰기 통합 모형



【참고문헌】

- 김기호 외, 『명저 읽기와 글쓰기』, 영남대출판부, 2011. 1~243면.
- 송주복, 『朱子書堂은 어떻게 글을 배웠나』, 청계출판사, 1999. 1~361면.
- 김양선,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 『인문과학연구』23집, 2009. 27~50면.
- 김용현, 「구성주의적 글읽기 개념과 그 가능성에 관하여」, 『독일어문학』36집, 2007. 1~21면
- 박상준, 「대학 토론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 시론 - 토론교육의 목적을 중심으로」, 『語文學』104집, 2009. 27~56면
- 박정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에 나타난 몇 문제」, 『시학과 언어학』18호, 시학과언어학회, 2010. 91~118면.
- 송재용, 「읽기와 쓰기 방법 일고찰」, 『교육이론과 실천』18권, 2009. 25~45면
- 이광모,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토론’과 ‘글쓰기’의 의미와 방향」, 『동서철학연구』44호, 한국동서철학회, 2007. 35~50면
- 이국환, 「전통적 교양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연구」, 『石堂論叢』42집, 2008. 139~164면
- 이명실, 「대학에서의 독서지도를 위한 교재 구성과 활용」, 『독서연구』10호, 2003. 143~162면
- 이명실, 「대학 ‘읽기-쓰기’ 강좌에 대한 학생 요구도 조사」, 『독서연구』19호, 2008. 279~306면
- 이선옥, 「대학 글쓰기에서 자료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 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149호, 2008. 755~778면
- 이재승,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11호, 2004. 275~299면
- 황영미, 「읽기 교육의 토론과 글쓰기 통합 모형 연구」, 『사고와 표현』3집, 2010. 7~33면

Abstract

The Plans of Heightening Efficiency of Integrative Education of ‘Reading·Discussion·Writing’

Kim, Won-jun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pecific plan of the integrative education and then to heighten the efficiency of the integrative education,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relevant, integrative education of reading·discussion·writing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is study,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hree-way Integration Model targeting Reading of Great Books and Writing opened in Yeungnam University by way of the examination on correlationship of discussion and reading great books, on correlationship of discussion and writing, on correlationship of writing and reading.

To begin with, the correlation of reading and discussion is examined out. A reader is approaching to the text with analytical, critical, comprehensive view, exerting an active attitude, in that reading is a prerequisite for discussion. In discussion, the readers rationalize their opinions or point of views through the contents and the key focuses organized in the course of reading. In the process of this, the need to do re-reading is raised, by which new understanding on the point at issue is provided. And then, it leads to a redefinition of his or her own points and to a discovery of new value. Therefore, reading and discussion reach a state of integration by mutual correlative exchange.

Because discussion and writing are a serial process, the two are supposed to be in correlation. Various points at issue and questions generat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are an excellent material or substance for writing. A good writing is formed with various subject matters based on a fresh theme generat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The correlation of discussion and

writing enhances each other's function. And when they are integrated, the synergy effect of them is amplified.

The correlation of reading and writing is similar to that of reading and discussion. Since reading is a prerequisite activity for writing,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function shown in the correlation of reading and discussion. Since the lecture of Reading of Great Books and Writing head not from reading to writing directly but toward writing in relation with reading and discussion together, the integration of reading, discussion, and writing by writing, the final step of the lecture is supposed to be completed.

Key-words : Reading, Discussion, Writing, Relation, Efficiency, Reading of Great Books and Writing, Integrative education.

김원준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04-715)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노변대백 101-1302호

전화번호 : (집 : 053-215-2723) (휴대전화 : 010-3507-6799)

전자우편 : kimwj1004@dreamwiz.com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
--